

보성군, 군민 안전 강화 총력... '재해예방사업' 박차

15개 위험지에 1446억원 투입 중도방죽 등 종합정비 추진 중 재해위험지 10지구 정비 완료 하천 3개소 특교세 34억 확보

보성군이 '군민 안전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관내 재해위험지역 15개소에 1446억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17일 보성군에 따르면 현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2지구, 7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지구,

441억원), 급경사지 정비사업(1지구, 1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1지구, 15억원) 등 총 4개 분야 6개 지구에 1230억원을 투입하고 지역 내 주요 재해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별교읍 시가지와 중도방죽 일대는 지난 2023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심사 및 국비 지원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725억원 규모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을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저지대 침수 문제를 일괄 해소하고 주민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우 시 제방 유실과 주택·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하천 범람 위험 지역 6지구에 총 216억원을 투입해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하천 3개소에는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국비 100%) 34억원을 확보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천 준설, 잡목 제거,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추가 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지구 중 현재까지 10개 지구의 정비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별교 봉림, 별교 양촌 등 4개 지구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하천 정비사업은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예방 사업이다"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해예방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자전거 무상 수리 서비스 광양시, 매주 평일에 운영

광양시가 시민들의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돕기 위해 17일부터 자전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무상 수리 서비스는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이 손쉽게 자전거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마련됐다.

수리 대상은 일반적인 자전거의 고장 부위로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조정, 기어 문제 등 기본적인 수리 작업도 포함된다. 서비스는 이날부터 매주 평일에 운영되며, 광양시 내 주요 공공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번 무상 수리 서비스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낙균 광양시 도로과장은 "이번 무상 수리 서비스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배달·택배비'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만원

여수시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 등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여수센터(061-665-3600, 3607)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배달·택배비 증빙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대상자는 배달앱·배달대행사 등의 협조로 배달·택배비 실적이 사전에 확보된 소상공인으로, 이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신속지급 대상 외에 택배사, 배달앱, 배달대행사, 커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으로,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오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빠르게 전달하고 편의성을 높여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군,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장흥군보건소는 지역 내 흡연자들의 금연 성공을 돕기 위해 야간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평일 낮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흡연자를 위해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야간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 금연상담사가 1:1 맞춤형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을 제공하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기념품도 지급한다.

장흥군보건소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들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 단체 등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참여 인원 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지역 내 흡연을 감소를 돕고, 더 많은 흡연자들이 전문적인 금연서비스를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대한민국압화대전 '국제적 관심' 구례군 주최...국외전 217점 출품

구례군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압화대전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4회 대한민국압화대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압화분야 국외전에서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 8개국에서 총 217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일본 작품은 지난해보다 54점 증가한 86점이 출품됐으며 중국(88점)과 우크라이나(9점) 등 세계 각국에서 개성 넘치는 작품들이 출품됐다.

군은 이메일로 접수된 해외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11일 1차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48점이 심사를 통과, 오는 3월 14일까지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의 실물을 받아 3월18일 2차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수상작들을 한국압화박물관에 1년 동안 전시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세계 각국에서 압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압화의 무한한 가능성과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압화대전 국내전 및 보존화 접수는 오는 3월1일부터 10일간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구례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광양시보건소 만성질환 예방 운동 교실에서 참가자들이 체조를 따라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보건소, 만성질환 예방 운동 교실

광양시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풍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국선도 운동 교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선도 운동 교실은 기순환 체조, 단전 호흡, 정리 및 강화 운동으로 구성되며 프

로그램 시작 전·후 체성분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협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진 및 건강 상담도 병행한다.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관리실(2층)에서 오는 3월5일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하며 수강희망자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보건소 한방진료실(061-797-4044)로 신청하면 된다.

서영옥 광양시 건강증진과장은 "국선도는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분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농특산물, 관광·체험 등 6개 분야

보성군은 2025년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기부자에게 더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하고, 보성군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농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생활용품, 관광·체험 서비스 등 총 6개 분야다.

모집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보성군에 사업장이 위치하고, 해당 품목을 생산, 제조, 배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업체는 최대 2개 품목을 제안할 수 있다. 기존 공급업체는 이미 제공 중인 품목을 제외한 1개 품목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보성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 만에 누적 모금액 7억2000만원을 달성했으며, 답례품으로는 녹두, 키위, 곱막, 제암산자 연휴양립 숙박할인권, 울포해수농자센터 이용권 등 92개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기부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답례품을 지속 발굴해 보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관찰 주소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기부액 기준 최대 30%) 혜택을 받는 제도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또는 농협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올해부터 기부 한도액이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성=양종수 기자**

